





버려지는 것들을 재활용한 아름다움,
고틀란드(Gotland)

GOTLAND,
SWEDEN



스웨덴 고틀란드

황지은 jehwang10@gmail.com

1. 들어가며

고틀란드(Gotland)는 스톡홀름에서 가깝고 스웨덴에서 가장 큰 섬으로 역사적 중요성, 문화유산, 다양한 풍경, 활기찬 관광 산업으로 유명하다. 최근 고틀란드의 디자이너들은 재활용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옛것을 잘 보존하면서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는 고틀란드와 그곳의 디자인을 알아보려고 한다.



고틀란드 중심지 비스뷔(Visby) 바닷가 ©황지은



고틀란드 비스뷔를 볼 수 있는 전망 지대 ©황지은

2. 도시의 프로젝트 추진 배경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발 방법(Vägar till hållbar utveckling/VTHU)’ 프로젝트는 지역 개발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역 사회 및 비즈니스가 환경적, 사회적 및 경제적 요소를 조화롭게 고려하며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는 스웨덴의 지역 개발 작업 방법을 개선하고, 기업 및 산업 부문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며, 관련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와 경제의 장기적인 번영을 추구한다. 프로젝트는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이를 실제 업무와 협력 활동에 반영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 고틀란드(Region Gotland)’는 지역 개발을 책임지는 중요한 주체로서, 이러한 지속가능한 접근 방식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발 방법¹⁾

3. 추진 현황과 결과

프로젝트 주요 대상 그룹은 숙박 업체 및 식품·식료품 업계 참가자, 프로젝트 소유주, 기업, 지역 고틀란드(Region Gotland)에 의한 지역 개발 책임자, 그리고 고틀란드 행정 위원회(County Administrative Board in Gotland County), 읍살라(Uppsala) 대학교, 스모랜드(Småland) 및 섬들과 같은 협력자들이다. 프로젝트는 다음 네 개의 하위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1) 이미지 출처 : wikimedia commons(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1_TIMES_17_UN_SDG1.png)

- 관광 산업
- 식품 및 식료품
- 비즈니스 지원, 프로젝트 지원, 상업 서비스 지원 및 유대 정책 내 지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 종합적인 변화 작업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확인된 목표 달성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지식, 협력 및 자금을 통해 지역 개발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활동은 이러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하며, 지식수준 향상, 지속가능한 의사 결정 지원 방법 개발, 전략적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 공유를 중심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개발 부서인 지역 고틀란드에서 운영한다. 종료일은 2022년이지만, 프로젝트 기간은 2020년 6월~2023년 11월로 프로그램이 연장되었다.

-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 : 고틀란드시의 스타트업을 위한 더욱 강력한 혁신과 경쟁력을 발전시킨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고틀란드 스타트업의 힘을 강화한다. 성장 기관은 프로젝트 제로를 위해 유럽 지역 개발 기금으로부터 사이언스 파크 고틀란드(Science Park Gotland) 지원을 승인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맥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받았다.
- **프로젝트** : 고틀란드의 필요한 모든 것(The Alla Needed på Gotland project) - 고틀란드의 고용주와 청년들을 연결한다.
- **스코겐스 공예 프로젝트(The Skogens Kraft project)** : 고틀란드, 오랜드(Öland) 및 스모랜드(Småland)에서 산림 다양도를 개발과 다중 사용자를 조직하여 산림 사업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공유하고 교환한다.
- **지속 가능한 음식 프로젝트(The project Sustainable Speis)** : 지속가능한 식사 경험을 통해 고틀란드를 개발한다. 지속가능한 향신료(Sustainable Speis)는 고틀란드를 지속 가능한 음식 목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표인 EU 프로젝트다. 더 좋고, 더 맛있고, 더 지속 가능한 식사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가 대상은 식사 경험을 창조하는 레스토랑 경영자, 제빵사, 레스토랑 경영자, 무역업자, 도매업자, 양조업자, 생산자다.

나. 추진 결과

종료일은 2022년이지만, 프로젝트 기간은 2020년 6월~2023년 11월이고, 프로그램이 연장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라 아직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없다.

4. 접근성(편의성)

로컬 기업들의 제품과 특산물들을 접할 수 있는 상점들은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과 자동차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매주 열리는 시장 일정과 판매 업체 정보는 온라인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시 업데이트되며, 시장 내에는 화장실과 쉬는 공간도 마련되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다.

가. 고틀란드 지역의 상점들과 카페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 크란쿠 카페(Kranku Cafe)에서 고틀란드 쓰레기(Gotland Garbage) 디자이너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나. 고틀란드 지역의 식당, 카페, 그리고 시장에서 그 지역의 특산물 등을 접할 수 있다.



고틀란드 쓰레기(Gotland Garbage) 기업의 제품 ©황지은



고틀란드 크란쿠 카페(Kranku Cafe) ©황지은

이러한 고틀란드의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진행과 더불어 최근에 새로운 기업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최근 고틀란드의 디자이너들은 재활용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사용된 가죽 재킷, 버려진 장난감, 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등 모든 것에서 재활용 제품으로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여 힐더 투 존(Hildur2John), 고틀란드 쓰레기(Gotland Garbage)는 리사이클링과 지속가능성을 지침으로 삼는다. 특히, 고틀란드 쓰레기는 고틀란드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제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액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들과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가. 고틀란드 쓰레기의 린다 루나스도티어(Gotland Garbage, Linda Runarsdottier) 인터뷰

리포터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디자이너 플라스틱 폐기물을 모아 새로운 가치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킨다.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플라스틱을 얻기도 하지만, 자연에서 발견한 쓰레기도 줍는다. 플라스틱은 여러 번 재활용될 수 있으므로 환경을 위해 재활용을 늘려야 한다.

리포터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했으며, 학업과 현재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나?

디자이너 윽살라(Uppsala) 대학교에서 인문지리학을 전공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심이 있었고 우리가 가진 기회와 도전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 글로벌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이바지할 수 있으며, 영향력을 행사할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리포터 왜 고틀란드에 회사를 지었나? 환경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도 알려달라.

디자이너 수년간 스웨덴과 전 세계를 여행하고 생활한 끝에 마침내 고틀란드에 정착했다. 스웨덴에서 가장 큰 섬인 이 섬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로 종종 높이 평가된다. 어머니가 그 섬에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이곳이 제 딸이 자라기를 바라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고틀란드로 이사한 2018년 여름은 무척 덥고 건조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구 온난화를 상기시켜 줬는데 다른 작업과 함께 기후의 불안정함을 느끼는 것에서 기후를 책임지는 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틀란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몇 년 후, 다른 직장을 그만두고 플라스틱 재활용에 전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리포터 쓰레기에서 주얼리로 변형한 배경을 알려달라, 그리고 이전 작업에 대한 소개와 그 변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

디자이너 버려진 장난감, 다시 쓸 수 없는 마스크, 쓸모없는 검은색 플라스틱들을 주얼리로 변신시켜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제품으로 탄생시킨다. 작업 중 오가닉 하트 모양의 목걸이를 좋아하는

데, 일본의 '와비-사비'의 덜 완벽하고 단순하지만 그 내면의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영감을 얻었다. 또한 다른 디자이너들과 협력하여 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춘 주얼리를 만든다.

리porter 작가님이 어디에서 주로 작품의 형태나 색감을 얻는지 궁금하다.

디자이너 앞으로는 디자인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색상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전에는 다른 색상이었다고 가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래된 우체통으로 버튼을 만들면 원래 우체통의 색상이 된다.

리porter 작가님의 프로젝트와 고틀란드시가 관계가 있나? 더 나아가 현재 사회와 관련이 있는가?

디자이너 적어도 고틀란드가 스웨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라고 자주 생각하는 스웨덴 사람들에게는 내가 고틀란드에 사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고틀란드는 섬에 거주하는 모든 예술가와 장인/여성으로도 유명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전에 소비와 생산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이어야 한다. 패션계에는 큰 문제와 과제가 있는데, 패스트 패션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예를 들어, 재활용 직물로만 작업하는 스웨덴 고급 패션 의류 브랜드 레이브 리뷰(Rave Review)의 주얼리를 만들었다. 그들은 "스웨덴 디자이너 2022"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파리 패션위크에서 옷을 선보였을 때 고틀란드의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주얼리도 있었다. 기분이 좋았다!

리porter 마지막으로, 한국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디자이너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해야 한다. 지구보다 아름답고 좋은 행성은 찾기 힘들다.



린다 루나스도티어와 함께 찍은 사진 ©황지은



버려진 플라스틱 장난감에서 탄생한 귀걸이 ©황지은



하트 모양 목걸이²⁾



버려진 마스크에서 재활용된 목걸이, 빛, 단추, 컵 ©황지은



버려진 장난감에서 재탄생한 귀걸이
귀걸이(파우스튜디오(Powstudio)와 협업 작품)³⁾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에 재활용한 플라스틱을
선보인 작품(레이브 리뷰와 협업 작품)⁴⁾

나. 힐더 투 존의 아멜리아 에릭슨 인터뷰

리포터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했으며, 학업과 현재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나?

아말리아 Amalia(아말리아)는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아, 사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부하면서 디자인을 창조하고 만들어 내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식이 커졌다. 그녀는 어렸을 때 바느질을 많이 했다. 그녀는 나무와 같은 단단한 질감의 재료를 좋아했는데 그녀의 강한 손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가죽은 그녀가 작업하기

2) 사진 출처 : @gotlandgarbage 인스타그램

3) 출처 : Rehoop, Linda Runarsdoitter(powstudio.se)

4) 출처 : Rave Review, Linda Runarsdoitter(rave-review.com)

에 적합한 소재가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었을 때, 가족과 함께 슬픈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소유물 중 일부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아버지께 물려받은 가구를 오래 간직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다시 만들고 업사이클링 하는 일이 소재를 오래도록 지속되게 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오래된 가구를 가지고 오면, 그녀가 러그, 쿠션, 그리고 꽃 등으로 변신시켜 주었다. 이로써, 그녀의 디자인은 사람들이 물려받은 소재가 있지만, 다른 모양의 형태를 지닌 멋진 창작물이 되어 그들의 집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작품은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다만 사람들이 오래된(물려받은) 가족 소재에 대한 배경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면, 디자이너의 영감과 연구를 통해 독창적인 재활용품이 되어 하나의 예술작품이 탄생한다. 그 작품을 접한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고, 업사이클링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지속가능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어가게 된다.

리porter 업사이클 디자인이라고 하면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설치물과 작업 등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가족 소재'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작가님이 주로 사용하는 소재에 대한 소개와 그 소재를 사용하게 된 계기, 매력에 대해 들려달라.

아말리아 아말리아는 가족이 그녀의 손과 잘 맞고,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소재여서 가족으로 작업을 많이 한다. 특히, 가족을 따는 형태를 좋아한다. 가족은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손길이 닿는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소재다. 그래서 그녀는 오래된 가족이 독특한 소재라고 생각한다.

리porter 솔방울처럼 생긴 러그와 쿠션이 흥미롭게 보인다. 이 디자인의 배경을 설명해달라.

아말리아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틀란드섬의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녀는 가족 소재를 남김 없이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작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반복적인 패턴을 만든다. 또한 그녀는 가족 공예를 좋아하는데 그녀의 손이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고 제작할 수 있으며, 강인함과 부드러운 느낌을 동시에 선사하는 소재다.

리porter 웹사이트를 통해서 회사 이름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으로 지었다고 알았다, 이름 말고도 다른 의미가 있는가?

아말리아 아말리아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는 13명의 자녀가 있다. 그중에 12번째 자식이 그녀의 아버지다. 대가족이자 매우 관대한 가족으로, 항상 주변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그것은 큰 사랑과 창의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의 이름인 Hildur(힐더) 그리고 할아버지 John(존)의 이름을 회사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이름을 쓰는 것이 존경과 감사함이며, 이야기가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만드는 것과 업사이클링의 기초이기도 하다.

리포터 작품의 형태나 색감 등의 아이디어는 주로 어디에서 얻는지 궁금하다.

아말리아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색을 만든다. 그녀는 색을 조합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시 만드는 것에는 종종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 과정이 훨씬 더 재미있고, 도전적이라고 생각한다.

리포터 작가님의 프로젝트와 고틀란드시가 관계가 있나?

아말리아 사람들이 가죽을 버리는 것은 환경 문제가 된다. 가죽은 타면서 유해 물질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죽을 버리는 대신 다른 모양과 형태로 집에 보관함으로써 환경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형태로 만드는 것,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오래된 가죽을 가져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를 통해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연결과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오래된 가죽을 업사이클링 하는 것이 사람들을 연결하면서 동시에 기분 좋게 만든다고 믿는다. 그녀는 또한 고틀란드의 자연은 고급스럽고 특별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가죽을 업사이클링 하는 것에 그녀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보조하고 유지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아말리아의 작업실과 아말리아 ©황지은



아말리아의 가죽 작업 도구 ©황지은

리포터 DIY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들었다, 이것이 어떻게 지금 사회와 연관이 있을까?

아말리아 그녀는 DIY 수업을 통해 가죽 업사이클링 기술과 창의성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수업에 오면, 손으로 일하는 것이 곧 마음의 휴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또한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창의적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한 지구상의 인간으로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배울 수 있다고 믿는다.

리포터 마지막으로, 한국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아말리아 우리는 모두 인간이며 대부분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우리가 속도를 늦춘다면, 좋은 삶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연과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 나은 디자이너들과 인간으로 만들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에 더 가까워질 것이다. 빠른 패션과 산업 변화는 자연과 다음 세대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물려받으면 좋을까?



남은 가족들을 모아놓는 아말리아 ©황지은



아말리아와 함께한 사진 ©황지은



오래된 가족으로 만든 쿠션⁵⁾



여러 가지 색의 가족으로 만든 러그⁶⁾



오래된 가족 재킷⁷⁾

5) 사진 출처 : Pillow, Amalia Ericsson(hildur2john.com)

6) 사진 출처 : Rug, Amalia Ericsson(hildur2john.com)

7) 사진 출처 : Amalia Ericsson(hildur2john.com)

마무리하며

Gotland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인 'Project Zero'에 속한 'Gotland Garbage'와 그 밖에 'Hildur2john'이 고틀란드 커뮤니티와 환경을 위한 업사이클링과 재활용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로컬 디자이너들의 노력이 현실적인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어 고틀란드의 풍요로운 자연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두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많은 환경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도로 개발된 경제와 생활 수준 때문에 플라스틱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폼 포장, 가전제품, 의류, 일상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라스틱 소비량이 상당히 높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소비에 관심이 있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로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이 매년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다. 매년 수많은 플라스틱 제품이 소비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자연환경에 지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다.

고틀란드의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단순한 우려를 넘어서, 진정한 행동과 혁신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다. 고틀란드 커뮤니티와 함께 업사이클링과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원리를 실천하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변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고틀란드의 '고틀란드 쓰레기(Gotland Garbage)'와 '힐더 투 존(Hildur2john)' 로컬 디자이너들은 우리에게 이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고틀란드 쓰레기에서 린다는 우리의 소중한 지구를 보호하며 고틀란드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을 모아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주얼리 등으로 재창조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힐더 투 존의 아말리아는 오래된 가죽을 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고 워크숍을 통해 고틀란드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함께 소통하며 환경을 지켜나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업사이클링의 가치는 한계를 넘어 꾸준한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우리는 이 디자인들이 서울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 사례로 삼아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틀란드의 프로젝트들은 예시가 아닌 동기부여가 되어,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고틀란드의 로컬 디자이너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작은 선택과 행동이 중요하다. 고틀란드의 프로젝트가 여러분과 저희 모두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라며, 이들의 노력과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열정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3 서울디자인리포터

황지은

현재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오키(Okko) 디자인 회사에 인턴으로 활동 중이며
건축, 인테리어 그리고 공간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다.